

●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합본

Gift Book

졸업, 입학, 취업, 도전과 선택……
이 시대 청년들의 영혼을 복돋우는 축복의 선물!

장기 베스트셀러 두 권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와 《참으로 신실하게》가, 선물용 고급양장본 한 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가격은 내려서 좋고, 품격은 높아져서 좋은 ‘업그레이드 Gift Book’!
졸업·입학·취업 시즌을 맞아, 앞날을 새롭게 결단하고 준비할 청년 세대를 위해 선물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군대에 입대하는… 해외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중인, 자녀·제자·후배·조카들에게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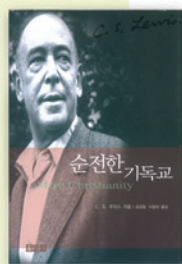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20가지 영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참으로 신실하게》는 기독교의 핵심인-말씀·믿음·구원·삶, 이 네 가지 가치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규명하고 있는 책이다. -YES24 편집자 추천평

이재철 지음 | 11.8×18.8cm | 양장 | 544면 | 13,000원 | 1월의 글들 177·191 합본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청년·새내기들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책들

순전한 기독교

타인지가 극찬한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20세기 서구인들이 포이아바호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서구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동아일보
★제18회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 최우수상(일반인 부문)
장영철·이종대 옮김 | 1월의 글들 185 | 양장 | 352면 | 12,500원



대천덕 자서전-개혁자의 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자서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라고 권면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실패하는 사진이 생생한 감동을 더한다.
★제16회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영도 부문)
대천덕 지음 | 양혜원 옮김 | 1월의 글들 167 | 양장 | 268면 | 8,800원



세벽을 깨우리다

많은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찾아 온 간증의 백미!
70년대 청년회에서 도시 빈민들과 함께 되어 살았던 청년 김진홍(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뜨거운 이야기가 복음과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김진홍 지음 | 1월의 글들 6 | 208면 | 16,000원



회복의 신앙

여섯 가지 주제로 풀어낸 참신앙의 핵심!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자가, 참신앙의 본질을 깊은 주해와 생생한 예화로 풀어 주는 감동적인 책.
이재철 지음 | 1월의 글들 171 | 272면 | 17,500원



나의 세계관 뒤집기

세계관의 대전환이 낳은 새로운 삶의 고백!
한국 라브리 총무 성인경 목사가 영국 라브리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균형잡힌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까지의 삶 이야기가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성인경 지음 | 1월의 글들 161 | 272면 | 17,500원



이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젊은 세대와 초신자를 위한 세계관 일문서”
프랜시스 쉐퍼 박사의 탈 수장 쉐퍼 맥클러의 목목 뒤는 세계관 이야기!
“수단 맥클러는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하는 데 성공했다.” - Campus Life Magazine
수진 쉐퍼 맥클러 지음 | 김종철·박진숙 옮김 | 224면 | 17,000원



크리스찬 새나기를 위한 대학생들 길잡이

대학생활에 대한 캠퍼스 현장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유익한 조언과 알짜 정보를 모든 대학생들 가이드!
“신배들은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후배들에게 이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다.” -고려한/성운이 선교장부연구센터 대표
학명복음화협의회 엮음 | 176면 | 3,5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책의 선물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2003년 3월

‘기쁨’을 찾아 떠난 영혼의 순례
- C. S. 루이스 회심기

루이스의 한 살 때와 20대 청년 시절 사진, 직접 그린 일러스트 등 수록



예기치 못한 기쁨

C. S. 루이스 지음 | 강유나 옮김 | 13.4×20.2cm | 양장 | 352면 | 13,000원

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독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나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써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고 시간 낭비 없이 책장을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첫 장을 쓰고자 애썼음을 밝혀 둔다.
-머리말에서

통합되는 작품임을 발견하고 매우 흥미로워할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책을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접어든 독자라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작품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채드 월쉬/세타데이 리뷰 Saturday Review

*이 책의 주요 차례

어린 시절/장제수용소/빛과 그림자/위대한 노크 선생님/운명의 미소/체크/무기와 전우/체코메이트/시작

*C. S. 루이스

아일랜드 벨파스트 태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와 케임브리지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쳤다.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제임스 패커) 또는 “20세기의 존 버니언”(윌리엄 듀리스/미국의VP 편집자)으로 불리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Time)로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Christianity Today)로 평가받은 정도도 현대 기독교 지성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는 크리스체너티 루메이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권’ 중 1위에 꼽혔으며, 2위 《제자의 대가》, 3위 《교회 고백의》, 퍼블리셔스 위클리 최고도서 부문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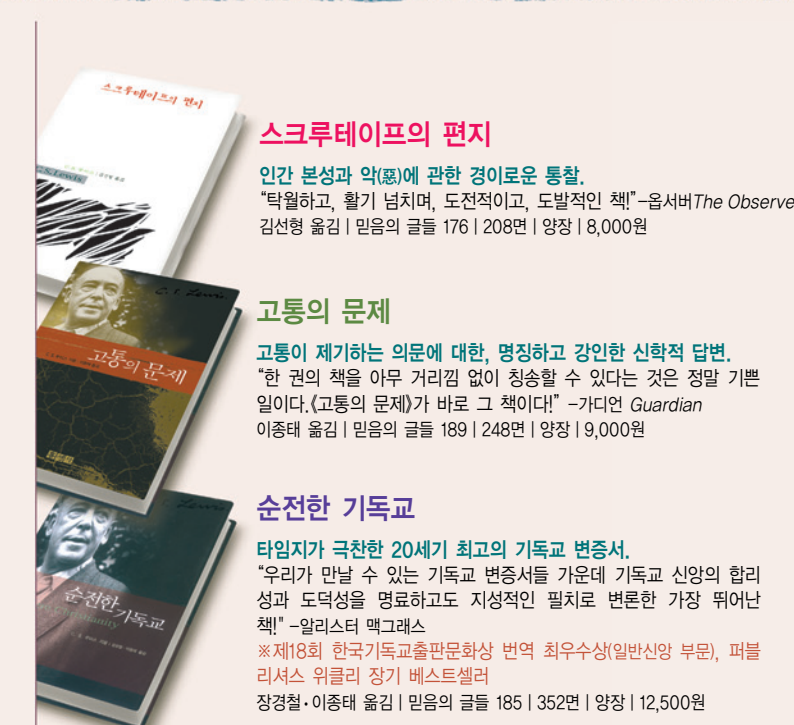
예기치 못한 기쁨

탁월한 번역으로 되살아난, C. S.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

“그의 걸출한 재능은 명쾌함이다. 당신은 그것을 두 가지 수준, 곧 진술한 자서전과 일종의 품격 높은 스릴러를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강유나 옮김 | 양장 | 352면 | 13,000원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은 영국 C. S. 루이스 형제(C. S. Lewis Company)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은 홍성사에서 공들인 번역과, 세심한 편집으로 삼벌을 기울여 펴내는 시리즈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인간 본성과 악마에 관한 경이로운 통찰.
“탁월하고, 활기 넘치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책”-옵서버 The Observer
김성현 옮김 | 1월의 글들 176 | 208면 | 양장 | 8,000원

고통의 문제

고통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고통의 문제) 바로 그 책이다” -가디언 Guardian
이종대 옮김 | 1월의 글들 189 | 248면 | 양장 | 9,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인지가 극찬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를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모한 가장 뛰어난 책”-월리스트 맥카스
※제1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 최우수상(일반인 부문), 퍼블리셔스 위클리 3기 베스트셀러
장영철·이종대 옮김 | 1월의 글들 185 | 352면 | 양장 | 12,500원

2003년 출간 예정



A Grief Observed

루이스의 신성에 가까운 책.
58세에 결혼했다가 4년 만에 불행히도 사망하는 아내 조이를 잃게 된 루이스가, 자신의 슬픔을 일기 형식으로 써 내려간 글.
이종대 옮김 *2003년 하반기 출간 예정



The Great Divorce

20세기관 (신학)이라 불리는 흥미진진한 책.
지옥 언저리에 사는 총령들이 천국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나누는 여러 대화를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 등을 펼쳐지 형식으로 보여 준다.
김성현 옮김 *2003년 상반기 출간 예정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도전 인터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침묵) 저자 엔도 슈사쿠

《침묵》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인 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서, 1982년 처음 우리말로 소개된 이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한국어판 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저자 엔도 슈사쿠를 기상으로 만나 보았다.

《침묵》은 ‘엔도 슈사쿠 최대 야심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침묵》을 쓰게 되신 배경은? 제가 1980년 말에서 1982년 여름까지 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투병 중에 나가사키에서 성화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금하고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마부가 고안해 낸 것으로서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 십자가상 등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겨 발로 밟게 했지요. 제가 본 성화판에도 거무스름한 발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성화판을 밟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후 1985년 1월부터 침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8월, 자비에르를 비롯한 여섯 명의 신부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5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려 전체 인구의 1.3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히데요시 시대의 봉건정책과 맞물려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었고, 1614년에는 그리스도교 대박해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어 외국인 선교사 400여 명이 마카오와 마닐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영주들의 학정과 그리스도교 박해의 결과로 대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시마바라 난’(島原の亂)입니다. 시마바라 난

이후 쇄국령이 내려져 네덜란드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하고 1641년에는 네덜란드인까지 나가사키 메지마로 이주시켜 막부의 감시를 받게 했는데, 침묵은 시마바라 난 진압 이후인 1637년부터 1644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요? 이 작품은 역사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다루고 있는 사건도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고는 요세베 캄라라는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로드리고의 일본 이름 오카다 산세몬(岡田三右衛門)은 요세베 캄라의 일본 이름 오카모토 산세몬(岡本三右衛門)에서 따 왔지요. 요세베 캄라는 이노우에 지쿠고노가미의 고문과 ‘구명 매달기’ 형벌을 받고 파교한 다음,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노우에가 살던 저택에서 생활하다가 1685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메지마 네덜란드 상사원 요나센의 일기’도 역사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작품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캄라를 포함한 세 명의 선교사가 일본에 잠입하여 모두 배교했지만, 작품 중에는 한 명의 선교사는 잠입하지 못하고 다른 한 명은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나은 배신자를 등장인물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성경이 그렇듯이 제 작품에도 비겁자, 겁쟁이, 배신자로 그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아 버린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

자였습니다. 침묵에 나오는 기지기로가 그랬고, 결국 로드리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존재의 결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종교적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탐구해 가며 인간 영혼과 육신의 싸움과 갈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 왔습니다. 제가 교백하는 예수는 ‘동반자 예수’입니다. 율법이나 교화에 갇혀 있는 예수, 서양 풍토에나 맞는 예수가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짓는’ 그런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병자나 세리나 창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지요. 이현주/홍성사 편집부 대리

*참고한 자료들: 황필호, 《엔도 슈사쿠의 종교 소설 읽기》, 신아출판사, 2002; 민세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타난 ‘고통’과 ‘구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희자,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의 신과 인간의 문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

도전 인터뷰

집회를 접으며 집회를 접으며 집회를 접으며

2001년 9월 하순 제네바에서 귀국하면서, 매달 국내외 1회씩만 집회에 응하고 나머지 시간엔 책을 쓸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 곳의 요청을 마구 거절만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즉, 2004년 말까지만 일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회 요청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그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결국 작업 부용사가 되는 셈인데, 그것은 제 개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 끝난 9월부터 100여 일 동안만도 국내에서 33회나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잔 날은 겨우 20여 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은 불과 4주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출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강행군을 하고서도, ‘우리 교회는 작다고 오지 않는 거냐?’ ‘우리 지방을 이렇게 푸대접하니까?’ ‘○○○ 목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즉, 2004년 말까지만 일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회 요청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그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결국 작업 부용사가 되는 셈인데, 그것은 제 개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 끝난 9월부터 100여 일 동안만도 국내에서 33회나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잔 날은 겨우 20여 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은 불과 4주 동안 무려

습니다. 무리한 일정에 제 건강이 여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 초에 수술 받은 왼쪽 무릎은, 충분한 회복의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매일 장시간 강단에 서다 보니 여러 모양으로 편지가 많았습니다. 결국 상당 기간 안식을 요하고 특히 장거리 비행은 금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부득불 급근 말로 집회 사역을 잠시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함과 아울러, 2003년에는 제 자신의 정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이 글은 홍성사 도서회원 소식지 《침묵의》 2002년 12월호에 실린 글로, 인터뷰를 대신하여 게재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저자 이재철



신간 깊이 읽기

삶이 녹아 있는 ‘감동적인’ 큐티 안내서



큐티를 정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의 진짜 맛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나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큐티로 가는 길을 선명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큐티를 소개한다면 저는 이 책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 강의와 세미나, 책들이 많지만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저자 김영재 강도사 자신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차는 것과 공부밖에 모르던 그가 부딪친 매느리로 겪은 마음고생, 쌓이고 쌓인 분노로 어느 날 문득 가슴에 뚫린 하나님, 순종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맞은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 그로부터 시작한 큐티 선교, 삶의 굴곡을 통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온 이야기들 읽다 보면 한편 안쓰러우면서도 도전이 되어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큐티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하기에 그의 큐티는 보다 쉽고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10년 넘게 큐티를 하면서 쌓인 깊고 풍부한 경험으로 큐티의 노하우를 보여 줍니다. 큐티의 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령,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삶으로 적용하고 기도제목으로 삼는 방법까지.

그래서 큐티가 어려워서 포기했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는 마음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거창한 것을 찾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대부분 자질구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순종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큐티를 적용한 사례는 과연 어떤 부분까지 큐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부부생활에 대해, 세상 부귀와 권력에 대한 집착에 대해, 큐티의 적용은 한계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일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아줌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고양인, 탄 때는 블라도 교회에서는 인정받으려 하는 집사님, 어느 누구, 어떤 사건과 생각,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보여 줍니다. 삶에 지친 사람,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 특히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전 《생명의 삶》 편집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보여 주는 필독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본다. 친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사랑하는 연인은 결혼을 기다린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찰스 콜슨의 《러빙 갓》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 준 책이며 이제는 필독서가 되었다. 저자 콜슨은 성경에서, 역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여행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있다.

나는 UCLA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였다. 이 책 《러빙 갓》은 내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책을 많은 친구들과 학생들과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권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모임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콜슨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주부, 할머니, 정치가, 판사, 그리고 살인죄를 짓고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

특별기획 Book News **책의 선물**

“사도의 권위를 갖춘 진정한 복음주의 설교자”



“18세기에 활약한 영적인 선각자들 가운데 화이트필드를 만들 시대의 요구를 빨리 파악한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진취적으로 복음 증거라는 위대한 사역에 앞장 선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내가 화이트필드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거론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J. C. 라일 John C. Ryle

“죽어선 화이트필드 목사를 통해 참으로 많은 영혼을 기꺼이 구원하였다. 지금까지 그의 설교가 열매를 맺지 못한 작은 없는 듯하다. 그의 발이 닿았던 광범위한 사역자 대부분에서 우리는 화이트필드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존 뉴튼 John Newton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조지 화이트필드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갖춘 진정한 복음주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그 자체였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초인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18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연사였던 화이트필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야 말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위인의 생애를 읽고 그의 육성을 들여보는 것은 대할 나위 없이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라일 대주교의 글은 탁월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화이트필드에 대한 평가 가운데서도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라일 대주교의 유명한 글을 이런 식으로 다시 접하게 되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라일 대주교가 강조했던 바들을 잘 보여 주는, 위대한 설교자 화이트필드의 대표작인 설교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능력 있게 쓰셨던 화이트필드의 생애와 설교들을 읽을 독자들をも고 기 바랍니다.

“독자들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주권적인 은혜로 배후셨던 대부흥을 우리 세대에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 D. M. Lloyd-Jones, 추천사에서

